

달리기의 마지막

울란바타르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날이다. 몸도 지쳐가고 있고 거리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날이다. 돌이켜 보면, 왜 그렇게 많이 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동안 달려온 길을 조금씩 나누었으면 새벽 2시 넘어서 숙소에 도착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한국 사람의 생각이다. 몽골에선 몽골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몽골이기 때문이다. 설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몽골에선 다음 기약이 없는 것 같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 해두는 것이 몽골 방식인 것 같다.



사진 1 다르한의 아파트

로 중국풍의 아파트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게르는 도시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 같다.

다르한은 인구 8만에 가까운 울란바타르와 에르데넬트에 이은 몽골 제 3의 도시이다. 러시아



사진 2 평원에 자리 잡은 다르한

호텔을 나섰다. 호텔 주변은 온통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사진 1). 마치 우리나라의 7, 80년대의 아파트 단지를 보는 듯하다. 높이도 그렇고 각 가구의 크기도 그런 정도로 보인다. 사회주의 국가는 대부분 아파트가 특징적이다. 시내로 들어서면서 보니 아파트가 더욱 눈에 띄었다. 시내 한복판에는 마치 중국의 어느 도시에 왔나 할 정도

의 국경도시 수흐바타르와는 100km도 안 되는 거리이다. 중국의 베이징에서 출발하여 울란바타르를 지나 시베리아로 이어지는 철도와 광산도시 에르데넬트에서 출발한 기차가 모두 다르한을 지난다. 다르한은 1960년대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신도시이며, 가까운 흥고르와 샤인골을 포함하여 자치주를 구성하



사진 3 다른 주변의 현대식 가옥

다. 다른은 오르홍 강가의 평평한 땅에 자리를 잡았다(사진 2). 우리나라였으면 광활한 논이 펼쳐지고 있을 것 같다.

오늘은 나담축제의 마지막 날이다. 하지만 마지막 날 답지 않게 도시가 조용하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을 마주칠 뿐이다. 오히려 적막마저 감돌고 있다. 아침을 먹기 위해서 식당을 찾아 골목을 뒤졌으나 문을 연 곳이 없었다. 우리와 참 다른 모습이다. 자동차 연료를 채우고 남쪽으로 향하였다. 과연 이곳이 몽골 북부의 산업 중심지답다.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이어졌다. 게르보다는 현대식 가옥이 초원을 메우고 있고(사진 3), 러시아로 향하는 기차, 무시무시한 송전탑, 공장의 굴뚝, 광활한 경작지. 그야말로 한국 사람에겐 몽골답지 않은 풍경이다. 달리는 길에 몇 곳의 식당을 들렸지만 역시 음식을 팔 생각이 없다.



사진 4 초원에서 아침

고 있다. 주변의 지하자원과 농작물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다. 그리고 보니 한국 사람들 생각에 몽골다운 것에서 먼 지역이 자치주인 것 같다. 몽골 속을 떠돌고 있으니 몽골이 어느 순간이 도시에 내렸다면 몽골이라 생각하기 어려운 동네임이 틀림없

들판에서 아침을 해결하였다. 이런 아침도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았다. 조그만 그늘이라도 될 만한 것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고 준비한 컵라면을 먹는 것이 우리의 아침이었다(사진 4). 이 년 전에는 들판에서 라면 먹는 것을 즐겼지만, 이번은 좀 다른 것 같다.



사진 5 경작지

지 않고 아침이 끝났다.

이제 이곳을 떠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생각하니 모든 것이 아쉽다. 지날 때는 아쉬움이 남지 않을 만큼 뚫어지게 보았다고 생각하였지만, 이제 초원을 떠난다니 아쉽기만 하였다. 광활한 경작지가 끝도 없이 이어졌다. 재배작물도 어제보다 다양하다. 밀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채, 채소류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다(사진 5). 마치 유럽의 혼합농업지역을 지나는 것 같았다. 땅이 넓으니 곳곳에 휴경지도 있다. 셀렌게(Selenge) 아이막과 토어(Tov) 아이막 경계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평평한 땅이라면 모두 경작지인 듯하다. 몽골의 땅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큰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유목만이 몽골의 유일한 산업인 줄 알았더니!

두 아이막의 경계는 고갯마루(Hustayn 고개)였다. 고개의 고도는 1,200m 정도이지만 주변



사진 6 Hustayn 고개의 어워

먹기는 하지만 즐기는 것 같지 않았다. 이것이 몽골 남쪽과 북쪽의 차이인 것 같다. 남쪽에선 음식마다 거의 양고기가 등장하였다. 북쪽에선 쇠고기도 자주 등장하였다. 그래서 북쪽에선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다. 그러나 라면을 찾을 리 없었다. 이제 숙달이 됐는지 한 시간이 채 걸리

산은 꽤 높아 보였다. 고개에는 다른 고개처럼 어워가 있고, 맨땅인 듯하지만 소들은 뭔가를 뜯고 있었다(사진 6). 고개 주변은 초원과 침엽수가 자라는 성근 숲이다. 마치 마지막 초원을 만끽이라도 하듯 꽤 시간을 보냈다. 초원으로 올라보니 양들이 풀을 뜯고 있다. 그 중 한 무리가 머리를



사진 7 양들의 피서

맞대고 서로 힘을 쓰는 듯한 모습이 특이하였다(사진 7). 힘자랑이라도 하듯 서로가 머리를 밀어 붙이면서 힘이 약한 양이 있는 곳으로 무리가 이동하기도 한다. 한 동안을 쳐다 보았다. 알고 보니 그들은 더위를 피하는 중이라 한다. 햇살이 하도 강렬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태양광을 피하는 것이다. 양들

의 지혜라고 보아야 할지, 머리만 땅에 박으면 시원해진다고 생각하는 양의 한계를 보았다고 해야 할지?

고개 너머는 내리막이 심하였다. 이제 마음이 그런 것 같다. 몸은 여기에 머물고 싶은데, 자동차는 서울을 향하여 질주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초원의 모습이 계속 이어졌다. 적당하게 기복이 있다. 아주 평평하지도 않고 급경사도 아니고 그저 살짝 살짝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뜨거운 오후에 살짝 지루하게 느끼기 시작할 무렵 노란 유채 밭이 나타났다. 잠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누구나 꽃은 예쁘고 좋아하는 것 같다. 여행하던 몽골 사람들이 발길을



사진 8 만발한 유채꽃



사진 9 마유주 판매

서 초원을 덮고 있는 경관은 비슷하지만, 도로면에는 특이한 것도 있다. 하라호름에서 체체를 랙으로 갈 때 길가에서 뭔가를 팔고 있는 것을 보았다. 또 그런 것이 길가에 나와 있다. 조그만 도자기 통에 무엇인가를 담고 임시 만든 그늘에 앉아 그것을 팔고 있다(사진 9). 아예 사람이 없는 곳도 있다. 통 속의 것은 마유주라고 한다. 몽골 사람들은 아이고 어른이고 가리지 않고 마유주를 즐긴다. 마치 우리가 송늬을 좋아하듯 누구나 즐기는 음료인 듯하다. 길을 지

멈추고 유채 밭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8). 마치 제주도의 노란 유채 밭을 지나 는 것 같다. 향기도 제주도의 유채와 다르지 않았다. 우리 고향에서도 척박한 땅에 유채가 잘 자랐다. 그저 유채는 흙과 물만 있으며 탈 없이 잘 자라는 식물인 것 같다.

남쪽으로 달리면



사진 10 밀도가 높은 게르 촌



사진 11 하천의 말

나는 사람들이 마시라고 길가에 나와 있는 것 같다. 물론 우린 그냥 지나쳤다. 이 년 전에 우연히 방문하였던 게르에서 마유주를 대접받은 적이 있다. 약간 시큼하다는 것 외에 맛을 설명하기 어렵다. 바로 그 뒤로는 초원 위에 게르가 있고 가축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 어느새 어제부터 아침까지 보았던 산업시설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 그저 전형적인 몽골 초원의 풍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풀이 좋고 도시가 가까워지고 있어서인지 게르의 밀집도가 좀 높아졌다(사진 10).

드디어 숙박하게 될 게르의 주인을 만났다. 그는 체첵 이모의 친구 남편이다. 몽골인 답고 해야 할지 우리와는 별 이야기 없이 차를 앞서서 달렸다. 검은 길을 십여분 달린 후 초원길로 접어들었다.



사진 12 점으로 보이는 게르

그야말로 광활한 초원이다. 아무 데나 차를 세우고 그냥 아무 게르에나 들어가면 될 것 같다. 이 년 전 체첵 할아버지의 게르가 있던 곳과 비슷하였다. 주변은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초원은 평화롭다. 하천을 건넜다. 하천에선 한가롭게 말무리가 물

을 마시고 있다(사진 11). 그들에게 미안했다. 우리가 분명 그들을 방해하는 것 같았다. 너무도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물을 건너니 또 다른 게르가 보인다. 마음속으로 저 곳이 우리가 갈 집인가 생각하였다. 바로 앞인 것 같지만 한 참을 그 집을 향하여 차가 달렸다. 옳지 하는 순간 차가 다시 방향을 틀고 고개를 오른다. 고개를 넘으니 또 다른 게르가 숨어 있다. 역시 같은 생각을 하는데 차는 계속 달린다. 30분을 넘게 초원을 달렸다. 그 사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를 반복하였다. 드디어 저 멀리 뭔가 달라 보이는 고개의 능선이 앞에 놓여 있다. 고개에 오르니 까마득하게 먼 곳에 게르가 보인다(사진 12). 저 게르가 우리가 갈 곳이라 한다. 고개에서 우리가 갈 게르를 보니 왜 게르는 모두 하얀색인지 알 것 같다. 푸른 초원 위에 하얀 게르가 선명하게 들어왔다. 초원을 헤매던 나그네가 안도의 한 숨을 쉴 것 같았다.

고개에 오른 후에야 게르 주인과 인사를 나누었다. 악수를 하였다. 무릉에서 만났던 씨름 선수의 손이 떠올랐다. 그의 손과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껏 초원을 즐겼다. 이제 이런 느낌은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걸어서라도 오늘 중에 숙소 게르에 도착할 것 같다.